



박찬호 아내, 요리연구가 박리혜 씨 온 가족이 함께한 요리교실
“우리 가족, 행복한 요리로
세상과 사랑을 나눠요”

한국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의 아내 박리혜 씨가 최근 첫째 딸 예린이와 함께 요리교실에 나섰다. 그동안 남편 내조하랴, 두 아이 키우랴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아온 그녀는 오랜만의 대외 활동에 적잖이 설레는 모습이었다. 2009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그녀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함께 나눠 먹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한다.

취재 김재우·김희성 기자 | 사진 & 자료제공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찬호 선수와 함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리혜 씨.
더 많은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제일교포 3세로 일본의 요리 메뉴 플래너와 푸드라이터를 겸한 요리연구가. 요리사관학교로 불리는 미국 CIA에 입학, 세계 각국의 요리를 공부한 박리혜 씨는 일본에서 엘리스 키친이란 요리교실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얼마 전 그녀는 남편을 따라 LA에서 뉴욕으로 집을 옮겼다. 다섯 살 애린이와 세 살 세린이를 키우며 남편 내조에 정성을 쏟고 있는 그녀는 지난해 한국에서 요리책을 낼 정도로 요리연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딸과 함께 만드는 요리는 행복 그 자체

박리혜 씨는 남편 박찬호 선수와 함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틈틈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에는 '남남 튼튼 미래 천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영양결핍의 빈곤아동 및 불우한 가정에 꾸준히 영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정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신나는 요리나라' 특별이벤트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평소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첫 행사에서는 온 가족이 밀가루 반죽을 하며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색수제비'를 만들었는데 영양이 풍부하고 집에서도 따라하기 쉬운 요리죠."

그녀만의 레시피와 노하우로 만든 요리는 어떠할지 정말 궁금했다. 시즌 내내 예민한 남편 박찬호 선수의 몸 컨디션에 맞춰 맛과 영양을 선사해 온 만큼 그녀만의 멀티 플레이어 레시피는 대한민국 아내라면 누구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터.

이날 행사에는 박찬호 선수와 첫째 딸 애린이가 함께 나와 그녀를 응원했다. 가족의 든든한 지원 덕분일까. 그녀는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 애린이가 작은 손으로 밀가루를 조물조물 주무르면, 엄마는 반죽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해주었다.

"아이들과 함께 수제비를 만들 때는 반죽을 깨끗한 비닐봉지에 넣어 아이들이 직접 자기 발로 밟을 수 있도록 해요. 또 아이들이 반죽을 끓는 물에 직접 넣으면 뜨거운 물에 다칠 수 있잖아요. 밀대로 반죽을 밀어 아이들이 반죽을 떼어낸 후 어머니가 물에 넣는 게 좋아요."

오색수제비는 일반 수제비보다 색깔이 좋아 식욕을 돋우고 영양소 섭취에도 도움을 줘 어른뿐 아니라 편식하는 아이에게 알맞은 요리라고 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치를 곁들여 오색수제비 한 그릇을 푹딱 비워낼 정도였다.

"오색수제비에 김치국물, 시금치, 단호박, 검은깨 등이 섞인 밀가루 반죽을 이용하면 더욱 영양 만점이에요. 빨강, 노랑, 초록, 검정, 흰색 이 다섯 가지 색의 수제비를 먹을 수 있어서 오색수제비란 이름이 붙었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수제비는 두 딸과 자주 만드는데, 오색수제비는 이번에 처음 연구해서 요리했어요. 이번 시즌 중에 남편에게도 듬뿍 요리해줘야겠어요(웃음)."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박리혜 씨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어려서부터 요리에 심취해 전문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를 배웠다. 아직은 한국말이 조금 서툰 그녀는 야구선수의 아내가 된 일상을 이렇게 고백했다.

"야구밖에 모르는 찬호 씨는 참으로 순수해요. 만화 주인공과는 차원이 다른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낭만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요." 어릴 적 만화에서 본 것처럼 근사한 프랑스 요리를 차려주는 낭만적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야구밖에 모르는 남편을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요리를 천직으로 여기고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박리혜 씨. 쿠킹클래스 외에도 요리잡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레스토랑의 메뉴 개발, 주방 스태프 교육까지 도맡았던 그녀는 결혼 후 모든 일을 한순간에 놓는 듯했다. 언젠가 지인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어렵기로 소문난 CIA를 졸업하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레스토랑에

“평소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에 관심이 많은 박리혜 씨. 온가족이 밀가루 반죽을 하다 보면 가족애가 더욱 돈독해 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구선수의 아내가 되고 보니 은근히 신경 쓸 일이 많더라고요. 특히 운동선수에게는 체력이 우선이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입맛에 맞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서도 일해보았는데,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고.

“요리가 좋다는 이유로 전문가로서 꿈을 펼쳐보고 싶어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야구공 하나로 죽을힘을 다해 뛰어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찬호 씨를 만나고, 그 뜻을 원 없이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은 책임감이 제 인생에서 더 커진 것이죠.”

요리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 남편의 뜻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일이 훨씬 가치 있다는 확신. 남편을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요리, 깊고 감칠맛 나는 한국 요리를 알게 되어 오히려 더욱 행복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까다로운 남편의 입맛을 위해 맛깔스런 밥상을 차려내는 야무지고 현명한 아내다.

결혼 초에 박리혜 씨는 박찬호 선수에게 장어덮밥과 돈가스를 자주 만들어줬다고 했다. 장어는 체력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고 돈가스는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였다. 일본에서는 돈가스가 승리라는 뜻의 ‘가스’와 발음이 비슷해서 시험이나 중요한 날 만들어 먹는 전통이 있다고. 그녀가 밝힌 박찬호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낙지볶음과 미소된장국이다.

“남편은 국물이 있어야 식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언제나 국과 찌개를 염두에 두고 하루 식단을 짜게 되죠.”

결혼 후 박찬호 선수를 위해 처음 한국 요리를 만들기 시작한 그녀는 이젠 ‘한국요리전문가’라고 소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특히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를 아직까지도 메이저리그에서 통련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그녀의 영양과 맛이 듬뿍 담긴 요리도 한몫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남편은 늘 고향의 맛이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 우리 형제까지 3대째 일본에 살다 보니 정작 한국 음식을 배우거나 접할 기회가 적었거든요. 손맛 좋은 시어머니께 한국 요리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조물조물 나물도 무치고 된장 풀어 찌개도 끓이시고, 어찌나 손이 빠르시던지, 또 그렇게 만든 음식 맛이 어찌나 좋던지요(웃음).”

시어머니가 요리할 때마다 옆에서 거들면서 메모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은 세세히 물어보면서 열심히 한국 요리를 배웠다.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 맛 좋은 음식을 만나면, 주방장을 찾아가 양념이며 반찬이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캐묻기도 했다. 무슨 요리든 쉽게 접근하는 그녀 특유의 방식으로 양념까지 만들어 갔다. 맛내기 까다로운 한국 요리의 고수가 다 된 셈이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던 그녀지만, 결혼해서 몇 년간 직접 해보니 한국 음식이 건강에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다고 한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 대신 한국 요리를 먼저 배웠을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은 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육류가 많지만 해산물과 채소도 많고요. 특히 남편은 해산물을 좋아해요.”

운동을 하는 남편을 위해 세세한 면까지 살피는 그녀. 물도 차가운 물은 몸을 차갑게 해서 미지근하게 준비해준다고. 그녀는 남편을 위해 요리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쓰는 점이 있다.

“운동선수다 보니 소금기가 적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은 싱겁게 해요. 점심에 내는 고기류는 기름기가 많지 않게 준비하죠. 밤에 늦게 올 때는 찌개와 함께 밥을 먹을 때가 많아요.”

행복한 여자, 이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더 많은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못 먹고 못 입는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 집니다.”

지난해 말부터 박찬호 선수와 함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리혜 씨. 좋은 일에 앞장서게 된 만큼 의욕도 남다르다. 지난해 한국에서 출판한 요리책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정도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요리책을 내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초기에 남편의 반대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논의 끝에 인세를 결식아동 돕기에 기부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책을 발간하게 됐죠.”

MBC '스페셜'에 출연해 가족을 위해 공을 던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 박찬호의 말이 떠오른다. “가족이 있기에 야구를 더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그는 진심으로 가정을 위하는 가장의 모습이었다. 두 딸을 직접 목욕시키고 매일 아침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자상한 아버지로서 보내는 평범한 일상까지도 기억에 선하다. 그의 뒤에서 늘 함께하며 이제는 야구 전문가가 되어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포기해야 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다. Q

“시즌이 아닐 때도개인운동을 하는 남편이 편안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대조하면서 지냈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시간에는 요리를 자주 만들어요. 아이들은 특히 쿠키를 좋아하죠”

